



지치부 요마쓰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지치부 요마쓰리와 애니메이션의 성지, 지치부시

지치부시(秩父市)는 사이타마현(埼玉県) 북서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577.83km²로 사이타마현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 도심에서 약 8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위는 산악과 구릉지로 둘러싸인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지치부층군(秩父層群)이라는 지층으로 구성된 부코산(武甲山) 등의 험준한 산과 변성암으로 구성된 완만한 소토지치부(지치부시 외곽) 산들, 그 모양의 차이와 여러 단층으로 나뉘어진 지치부 단구 지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 내는 풍요로운 자연과 예로부터 전해진 역사와 문화는, 지치부시를 풍광명미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현재, 지치부시는 주변 4개 마을과 더불어 '지오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오파크란, 지역 고유의 지질과 지리, 생태계, 역사·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있는 그대로 정비해 '지구와 인간 관계'를 주제로 하는 시민 공원을 조성하고,

행정 및 관계 기관, 주민 등이 협력해 이들 자원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지치부를 대표하는 장엄한 축제와 파워 스폿(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은 '미쓰미네 신사'

2017년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치부 요마쓰리'는 지치부의 총사(總社)인 지치부 신사의 예대제(例大祭, 큰 제사)로서 교토의 기온 마쓰리, 히다의 다카야마 마쓰리와 더불어 '일본의 3대 히키야마 마쓰리(끌거나 메는 장식 수레가 동원된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 축제는 매년 12월 2~3일에 실시되는데, 제례 당일엔 휘황찬란한 2대의 가사보코(제례에 사용되는 큰 우산 모양의 장식을 붙여서 끌고 다니는 수레)와 4대의 야타이(축제 때 끌고 다니는 수레)를 끌며 행진한다.



지치부 분지를 뒤덮은 '운해'

절정은 3일 밤으로 최대 20t에 이르는 가사보코와 아타이를 가파른 언덕의 집결장소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은 박력이 넘치며, 이에 맞춰 약 7천발의 불꽃이 쏟아 올려져 겨울 밤 하늘을 수놓는다.

그리고, 매년 10월 두 번째 일요일에는 '류세이 마쓰리'가 개최되는데, 그 옛날 우주에 심취한 산골 백성이 예지와 감성으로 고안했고, 27개 유파에 의해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수제 로켓 '류세이(龍勢)'가 무크 신사(椋神社)에 봉납되고 있다. 승천하는 용을 연상시키는 데서 이름을 따온

'류세이'가 청명한 가을 하늘로 날아오른다.

또 표고 1,100m에 위치한 '미쓰미네 신사'에서는 매달 1일에 한해 '기마모리(氣守)'라 부르는 흰색 부적을 판매하는데, 매우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는 장사진을 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사철 피어나는 꽃과 장엄한 풍경

먼저 봄에는, 크고 작은 30개 이상의 시다레자쿠라(가지가 축 늘어진 벚꽃)가 경내에 심어져 있는 '세이운지(淸雲寺)



부코산이 내려다보이는 지치부 분지



하늘을 날아오르는 수제 로켓 '류세이 마쓰리'



세이운지의 '시다레자쿠라'



꽃의 융단 '시다지쿠라노오카'

의 벚꽃'과 약 17,600㎡에 40만주 이상의 꽃으로 디자인해 조성한 '시다지쿠라노 오카'의 잔디 벚꽃, 지치부 뮤즈파크와 미쓰미네산의 석남꽃 등이 핀다. 여름에는 아라카와 지구(荒川地区)의 메밀꽃과 연꽃, 지치부 뮤즈파크의 원추리와 백일홍이 핀다. 또 시내 각지에 반딧불 자생지가 있어 환상적인 비상을 볼 수 있다.

가을에는 오키지치부산이 울긋불긋 물드는데, 일교차가 심해지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는, 지표면에서 발생한 안개가 끼면서 '운해'가 만들어진다. 표고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운해가 지치부 분지를 가득 메우는 장대한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지는데,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겨울에는 바위틈에서 흘러 나오는 천연 석간수(石清水)가 얼어서 생기는 얼음기둥 '미소쓰치노 쓰라라(三十糞の氷柱)'가 모습을 드러낸다. 강추위가 만들어내는 얼음 예술은 높이 10m, 폭 50m에 이르며, 밤에는 조명을 비춰 환상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성지와 이미지 캐릭터 '포테쿠마군'

지치부가 무대 설정의 모델이 된 애니메이션 '그 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2011년 4월부터 후지TV의 심야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대를 일컫는 '노이타미나(noitamina)' 등의 시간대에서 방송되어,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영화는 사춘기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갈등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2013년 8월에는 극장판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가 전국에서 개봉되어 대히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갈

은 스태프가 제작한 감동 청춘 군상극 제2탄, 영화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가 개봉되어,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건물과 풍경을 보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많은 애니메이션 팬이 '성지 순례' 하듯 방문하고 있다.

또, 2015년 1월에 탄생한 지치부시의 이미지 캐릭터 '포테쿠마군'은, 지치부의 토속 요리인 '미소포테토(튀긴 감자에 된장 소스를 얹은 요리)'를 좋아하는 곰 요정으로, 지치부시의 홍보부장으로도 임명되었다. 지치부시의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그 귀여운 모습과 몸짓으로 조금씩 팬을 늘려 가고 있다.



지치부시 이미지 캐릭터 '포테쿠마군'

지치부의 풍토가 낳은 다양한 미각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일교차 또한 큰 지치부는 포도와 딸기 등의 과일과 메밀 재배에 적합하고 열매 따기와 농사 체험 등도 가능하며, 제철의 맛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치부에서는 일본 전역의 단풍 나무 수종 대부분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줄이면 '메이플 시럽'이 된다. '메이플 시럽'은 캐나다가 유명하지만, 지치부에서도 이 시럽을 사용한 과자와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어, 지치부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집필 : 지치부시, 협력 : CLAIR, Seoul)